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건네는 만화가 최호철

글 · 윤승일 nagneyoon@empal.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그를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남. 그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지인들이 얽히면서 이야기의 주제는 빗겨 나갔다.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그는 말이 없다. “아~ 하…… 그렇구나……” 상대의 말을 부추기는 추임새 정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었다. 입가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미소를 머금고 얼굴을 상대방에 가깝게 들이댄 그의 표정에선 호기심이 감춰지지 않는다. 익숙한 사람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향한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가끔 익숙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일어난 그의 자리엔 어깨걸이 끈을 매단 작은 스케치북이 여전하다. 그의 이름은 최호철(44세, 청장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이다.

만화가와 화가의 사이 그 어디쯤?

한국 만화계에서 최 교수의 자리는 독특하다. 세밀화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적인 묘사와 만화의 특징인 칸에 얽매이지 않는 화풍. 그리고 화풍 가득히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평단에서 만화와 회화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최 교수 자신은 이러한 논쟁에 무덤덤하다. 최 교수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며, ‘세상이 보이지 않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최호철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와우산’ (1994년 74cm×105cm, 종이에 채색,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은 최 교수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더욱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간직한 와우산을 중앙에 놓고 보여주는 세상은 초광각 렌즈로도 담아낼 수 없는 넓은 세상이다. 그 넓은 화폭 곳곳에는 가보지 않고서는 그려낼 수 없는 골목 안 풍경과 그 골목의 주인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와우산’ 뿐만 아니라 최 교수의 작품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빼곡하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 위해 굳이 말풍선을 달지 않는다. 앞서서 나서지도 않는다. 다만, 작품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이기에 작품 속 인물 어느 하나도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당당하다. 사람들은 낮익은 우리네 일상의 이웃인 노동자 서민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로 다른 각자의 표정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그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최 교수는 이들을 만나고자 그들이 오가는 지하철을 타고, 그들이 사는 골목을 관찰한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예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스스로 취미가 “바라보기”라고 말하는 최 교수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1백 권이 훌쩍 넘는 스케치북은 최 교수가 바라 본 우리 세상이고 삶이다.

“모순으로 채워진 공간인 세상은 무언가 조화로운 것 같아요. 필연성이 아닌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 같은……” 최 교수는 그 힘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권력과 억압, 차별에서 찾는다. 최 교수의 그림은 세상을 옥죄는 알 수 없는 힘을 깨는 무기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각자가 각자의 것’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에



"모순으로 채워진 공간인 세상은 무언가 조화로운 것 같아요. 필연성이 아닌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 같은……" 최 교수는 그 힘을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권력과 억압, 차별에서 찾는다.



『태일이』는 최 교수의 첫 장편이다.

게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들이 균중이든 개인이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공간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간다. 무심한 듯하면서도 서로 관조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주체다. 그래서 표정은 고단한 삶도 어찌지 못하는 밝음으로 그려진다. 지독하리 만큼 꼼꼼한 묘사가 지겹지 않고 보는 이를 오히려 화폭으로 끌어들이는 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최 교수 작품에 담긴 '희망'이라는 지향점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최 교수의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을 그린다, 희망을 그린다

지난 촛불정국을 그려 낸 최 교수의 작품은 건물의 창과 옥상까지 채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버스정류장의 낙서까지 세밀하게 그려낸다. 그 그림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표정과 행위는 각각 다르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미소를 짓고 있다. 심지어 전경의 얼굴에도 미소가 엿보인다. 세상은 변화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변화는 결국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림뿐 아니라 모든 창작물은 작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지나온 세월이며 꿈꾸는 미래다. "정보보다 잘하는 게 그림밖에 없는 듯해서" 들어선 그림의 길에서 386청춘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운동'을 만난다. 그림을 그리는 탓에 민중미술을 만나고 그림을 그린 탓에 야학교사를 하면서도 만화라는 매체를 만났다. 그림이 다가서기 더 편했기 때문이었다. 1995년 새싹만화대상에 '자전거'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만화가이면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할 정도로 그의 영역은 넓다.

그가 매체의 성격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매체를 융합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림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통은 목적을 갖게 마련이다. 최 교수의 그림에서 찾아지는 목적은 희망이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이런 것이 희망이다' 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발품을 팔아 그려 낸 골목과 버스, 지하철의 풍경을 스스로의 시선으로 재조합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그래서 놓치고 마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이다. 첫 장편인 『태일이』도 죽음의 그늘을 앞세운 탓에 미처 보지 못한 전태일에게서 마땅히 보았어야 할 것들이 5권의 책에 담겨있다.

『태일이』는 최 교수의 첫 장편이다. 최 교수가 전태일을 만난 것은 1980년대 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였다. 자신의 "삶이 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전태일의 삶은 충격"이었으면서도 이미지는 아름답게 떠올랐다. 그리고 싶었다. 전태일은 간간이 한 컷, 혹은 10쪽짜리 만화로 최 교수의 손끝에서 재탄생했다. 『태일이』의 예고편인 썸이다. 전태일은 언젠가는 그려야 할 숙제였고 짐이었다. 2003년 어린이 만화를 연재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나서야 전태일은 열사의 족쇄를 풀고 빛나는 사람으로 다가왔다.

분노의 코드 전태일을 빛나는 사람 태일리로

최 교수가 다시 만난 전태일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의 슬픔과 조그만 상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주변은 보지 못하고 까마득히 먼 곳의 물질적 성공만 바라보는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사람" 이었다. 죽음의 그늘에서 분노의 코드가 돼버린 전태일을 '빛나는 사람'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최 교수의 겸손함이 키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려보라는 것이었어요. 끝내 그리지 못했어요. 익숙한 얼굴인 데도 막상 그리려니 이상스럽고 낯설더라고요." 최 교수가 그려내지 못한 것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할머니가 살아 낸 세월이었을 것이다.

최 교수는 할머니의 얼굴을 그리지 못한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시선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좁지만 볼 수 있는 세상은 넓다. 그 넓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보고 그린다.



◀ 와우산 (1994년 74cm×105cm, 종이에 채색,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시장에서, 골목길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최 교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인터뷰어의 얼굴을 그려내더니 아예 사진기를 들이댔다. 그렇게 모은 100장의 사진이 그림 한 장이 된다. 그렇게 모은 이야기들은 그림 한 장의 인물이 되고 표정이 되기도 한다. “그림을 그리면서 깨닫고, 배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최 교수가 보여주는 세상은 철저한 학습의 결과물이다.

다시 백지 앞에 서다

거의 7년에 걸친 장편을 끝낸 지금 최호철 교수는 다시 백지 앞에 서 있다. 다시 무엇을 그려낼지 아직은 자신도 모른다. 만화와 회화의 경계에 서있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다.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아주기를,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면에선 출판이란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만화라는 매체가 더 정겹다.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연필에 힘이 실리니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릴 것이다. 그 과정은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되는 길이니 멈출 순 없다. 그림에 딱히 주인공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깊기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기를 희망하는 최호철 교수를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지하철이건, 시장통이건, 뉴타운에 밀려나는 달동네 어디선가 누군가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면 그가 최호철 교수다. 그를 만나면 앞서 말을 건네보자. 그가 희망하는, 우리가 마땅히 이뤄야 할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글 윤승일 |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현재 <한겨레21>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